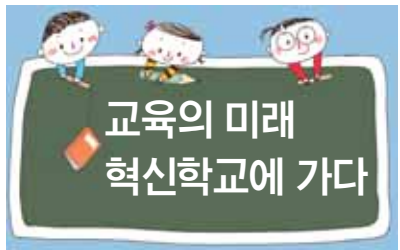


교사 주도 수업 옛말...학생 주도 토론·체험학습 활기



2 혁신학교 1년 맞은 광주여성
 텃밭 가꾸기·이웃 김장나눔
 인성·진로 교육 취업성과로
 광주·전남 혁신학교 단 7곳
 입시 위주 교육에 확산 더뎠다

11일 찾아간 광주여상의 수업 풍경은 다소 생소했다. 모둠별로 학생들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토론 교육 뿐 아니라 학생들 주도로 수업과 관심과 흥미가 있는 체험 활동이 이뤄지는 교육과정도 낯설었다.

“교사 주도로 수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공부에만 집중하던 수업 방식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게 김홍록 교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빛고를 혁신학교로 변신한 광주여상에서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다.

혁신학교는 교사 주도로 진행되는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 학생이 수업의 중심이 되어 토론하고 참여하는 창의적 수업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의 개별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 학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혁신학교 확대 공약을 내걸었음에도, 고교의 경우 한국 교육체계상 수학능력시험과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대신, 인성·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수업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따른 학교측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일반계 고교 뿐 아니라 취업률 최우선으로 하는 특성화고도 비슷하다.

초등학교와 달리, 대입 또는 취업과 연관성이 큰 상급학교로 갈수록 혁신학교가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에서도 혁신학교 54곳 중 고교는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인 동명고와 공립고인 성덕고, 특성화고인 광주여상과 전남여상 등 4곳이 전부다.

전남도 비슷해 고작 3곳의 고교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상태다. 그나마 2015년 이후로는 고교에서는 새롭게 지정된 혁신학교가 한 곳도 없다.

광주여상은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명문 특성화고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우선, ‘정년 취업률’이 계속되는 데도 취업률은 가파르게 상승



광주여성 학생들의 수업 장면. 교사 주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모둠별로 학생들끼리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는 토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스피치 발표대회, 텃밭가꾸기, 감사의 꽃 만들기 등은 학생들 주도로 진행된다. <광주여성 제곡>

했다. 광주여상의 취업률은 ▲2014년(5월 기준) 51.6% ▲2015년 56.2% ▲2016년 71.1% ▲2017년 81.5%로 급등했다.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도 2015년(1.7%)에 견줘 지난해(1.2%)로 감소했다. 고교 진학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거엔 인문계 고교에 떨어진 뒤 특성화고에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달라져 특성화고에 응시했다가 떨어져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도 생겨나고 있다.

입학하는 학생들 학력 수준도 높아져 광주여상의 경우 올 해 신입생들의 평균 성적이 중학교 내신 약 37%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여상은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강조한 게 성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특히 학교와 모든 교사들이 협력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가르치는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취업 분야만 하더라도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체험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사정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했고 관련 프로그램도 철저히 학생을 중심에 두고 계획했다는 것이다.

학교측은 이런 방식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학교 ▲머물고 싶은 행복공간 ▲인성·기초학력 제고 ▲성공적인 취업 지원 등으로 분야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교사들은 워크숍, 관련 연수를 통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이 분야별로 ‘자신의 꿈을 정하기’, ‘친구들과 같이 밥 먹기’, ‘사랑의 김장 담그기’, ‘1박2일 스스로 테마여행’ 등의 체험·봉사활동과 ‘테마가 있는 산책로·야외도서관 만들기’, ‘1학생 1시와 계산판 갖기’, ‘오카리나 합주 참여하기’ 등에 참여할 때는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에 충실했다.

■ 시도별 혁신학교 지정 현황

(2017년 8월 기준·단위:개교)			
경기	435	충북	31
전북	159	인천	30
서울	158	제주	23
전남	88	대전	10
강원	55	세종	10
광주	54	대구	0
충남	54	울산	0
경남	38	경북	0
부산	32	합계	1177

학생들 스스로 학교 주변,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활동을 실천하면서 보람도 크게 느끼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취지에서다.

혁신학교로 바뀐 뒤 꾸준히 만들어지는 잡지 ‘도란도란’과 학교 대표 축제, 숲 사랑 소년단 활동 등은 학생들 주도로 치러진 지 오래다. 학생들 스스로 선택, 결정하고 바뀌 나갈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학교 축제와 학교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도 높다는 게 학교 설명이다.

김홍록 교장은 “주입식 교육에 갇혀서 인공지능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인재를 키우기 어렵다”면서 “학생, 교사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교육과정을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인턴십은 좋은 스승 80% 관련분야 진출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 경남 태봉고

학생이 직접 직업교육계획

경남 창원 태봉고는 국내 유일의 ‘기숙형’ 공립 대안학교다.

‘서로 배우고 함께 나누자’를 교육 철학으로 교육과정 중 43%가 특성화 교과(인턴십·이동학습·나눔활동·노작교육)로 이뤄져 있다. 운영 방식도 학생 주도로 진행된다.

특히 인턴십 교육은 ‘경험만큼 좋은 스승은 없다’는 취지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입시 중심의 인문계 고교 커리큘럼과는 사뭇 다르다.

학생들이 직접 직업교육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 현장 활동을 다녀온 뒤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떠나거나 네팔·라오스 등으로 진로체험이동학습을 떠나기도 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 탐색에 나서게 된다. 막연했던 자신의 꿈과 진로를 확고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게 학교측 설명이다. 교직원, 학생들의 문화와 어울릴 때 훨씬 효과가 높아 진다.

학교측은 지난 3년간 인턴십 활동

결과를 분석한 결과, 졸업생의 80%가 인턴십 활동과 관련된 분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아노 연주가 특기인 서경석(2년)군은 지난 7월 열린 활동결과 발표회에서 “이번 1학기 동안 하루 3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한다는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했지만 처음 작곡을 해봤다”며 “이번을 계기로 곡을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발표했다.

학생들은 지난 학기 중 바리스타와 조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얘기나 체육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접어야했던 얘기들을 또래 동료학생들에게 들려주고 서로 토닥이며 조언해줬다.

학생, 교사들은 매주 수요일 공동체 회의를 열고 학교 운영을 위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 생활규율도 여기서 결정된다.

박영훈 교장은 “차별화된 교육은 프로그램보다 사람에 달려 있다”면서 “교사, 직원, 학생들이 서로 어울릴 때 효과가 높아지고 어떤 마음을 갖고 아이들에게 다가서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태봉고 학생들이 지난 7월 열린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진로를 위해 한 학기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래 친구들과 교사는 격려하고 조언하며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돕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스엔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대형토지

- 빛그린산업단지 인근
- 문장공용터미널 근접
- 대로 및 중로 3면 도로접
- 개발가능 생산녹지 5,000평
- 가격 : 저렴하게 협의

H. 010-5236-7458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